

# 言語를 통한 奉仕警察像 定立에 관한 小攷

朴 景 賢

( 助教授 · 國語學 )

..... <目	次> .....
I. 序 言	2.4 事實根據語
II. 奉仕警察의 言語使用	2.5 多值的 思考判斷語
2.1 尊待語	III. 結 語
2.2 標準語	參考文獻
2.3 感情節制語 및 親交語	

## I . 序 言

말은 단지 發音器官의 작은 운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그 영향과 반응은 사람의 意識 · 思考 · 行動 더 나아가 社會와 國家를 움직이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찌기 훔볼트(Humbolt)는 「말은 단지 만들어진 것 [ergon]이지만,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살아 움직이는 힘 [energia]을 가진다」고 말한 바 있다. 모든 말은 힘을 가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을 잘 부리어 쓰면 서로의 믿음을 敦篤히 할 뿐만 아니라, 남의 마음에 자기를 깊이 담아 주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말을 잘못 부리면, 남에게 실망을 주고 미움을 사게 된다.

우리는 단순히 말 때문에, 個人과 個人, 集團과 集團 더 나아가 國家와 國家 사이의 관계가 圓滑해지기도 하고 不和와 軋轢의 늪에 빠지기도 하는 일을 적지 않게 본다. 또한, 한 個人이나 職業人에 대한 印象이나 評價도 단순히 그들이 사용하는 말 때문에, 高壓의이라느니 威脅調라느니 不親切하다느니 官僚的이라느니 評價切下되기도 하고, 親切하다느니 仔詳하다느니 情感 어리다느니 奉仕的이라느니 評價切上되기도 하는 일을 흔히 경험한다.

本放에서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公職을 遂行하는 警察官의 진정한 奉仕像을 定立하기 위하여 言語使用面에서 어떤 점을 留意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 Ⅱ. 奉仕警察의 言語使用

### 2.1 尊待語

理想的인 言語狀況은 話者와 聽者가 서로 對等하게 존중되고 어느 한쪽에 一方의이거나 強壓的인 말이 오고 가지 않는 것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라는 속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만큼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黃金律을 말의 禮節에다 적절히 적용한 의사소통의 기본원칙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반말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반말은 「말의 反對」 즉 「말이 아닌 것」 또는 「말의 半쪽」 즉 「不完全한 말」로 풀이해도 될 만한 말이다. 사람끼리는 곱지 못한 말이라도 주고 받아야 하는데 반말은 말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할 소리가 되지 못한다. 반말을 들어서 는 안 될 경우, 반말을 듣게 되면 누구나 화를 내는 것은 聽者를 제대로 사람 대접을 안 해준다고 믿어서이다. 우리는 民主市民으로서 相互平等의 관계에 있으니 서로 尊待語를 사용하여야 하고, 公僕으로서의 公職者는 主人인 國民에게 尊待語를 써야 한다고 서로가 意識은 하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반말은 그 말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심한 갈등을 가지게 하고, 특히 공직자의 반말사용은 공직자에 대한 信賴感을 低下하는 심각성을 초래한다. 혹 公益과 秩序를 위해서는 반말을 不可避하게 쓰지 않을 수 없다는 변명을 한다면, 이는 국민의 생각이나 기대를 外面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公共의 業務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불유쾌한 말투는, 그 말을 듣는 이를 불쾌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전체의 對官廳 認識을 흐리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公職者는 公僕으로 奉仕하는 자세를 오고가는 한마디 말에서부터 意圖的으로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本放에서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公職을 遂行하는 警察官의 진정한 奉仕像을 定立하기 위하여 言語使用面에서 어떤 점을 留意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 II. 奉仕警察의 言語使用

### 2.1 尊待語

理想的인 言語狀況은 話者와 聽者가 서로 對等하게 존중되고 어느 한쪽에 一方의이거나 強壓的인 말이 오고 가지 않는 것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라는 속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만큼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黃金律을 말의 禮節에다 적절히 적용한 의사소통의 기본원칙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반말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반말은 「말의 反對」 즉 「말이 아닌 것」 또는 「말의 半쪽」 즉 「不完全한 말」로 풀이해도 될 만한 말이다. 사람끼리는 곱지 못한 말이라도 주고 받아야 하는데 반말은 말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할 소리가 되지 못한다. 반말을 들어서 는 안 될 경우, 반말을 듣게 되면 누구나 화를 내는 것은 聽者를 제대로 사람 대접을 안 해준다고 믿어서이다. 우리는 民主市民으로서 相互平等의 관계에 있으니 서로 尊待語를 사용하여야 하고, 公僕으로서의 公職者는 主人인 國民에게 尊待語를 써야 한다고 서로가 意識은 하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반말은 그 말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심한 갈등을 가지게 하고, 특히 공직자의 반말사용은 공직자에 대한 信賴感을 低下하는 심각성을 초래한다. 혹 公益과 秩序를 위해서는 반말을 不可避하게 쓰지 않을 수 없다는 변명을 한다면, 이는 국민의 생각이나 기대를 外面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公共의 業務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불유쾌한 말투는, 그 말을 듣는 이를 불쾌하게 할 뿐아니라 국민전체의 對官廳 認識을 흐리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公職者는 公僕으로 奉仕하는 자세를 오고가는 한마디 말에서부터 意圖的으로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 2.2 標準語

標準語는 한 國家가 國家單位의 公用語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制度的으로 규정해 놓은 말이다. 곧 표준어는 한 나라의 公用語·共通語로서 政治·文化·教育 등 모든 公式的인 活動에 사용되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표준어는 行政首都 서울지방을 중심으로 中流階層 또는 教養있는階層의 사람들이 現在 사용하는 말을 가다듬고 取捨選擇하여 制定된 말이다. 이런 점에서 표준어는 다른 어느 地域의 方言에 비해 理想的인 말이다. 그리고 표준어는 어느 지역에서나 공용어로서 통일적으로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국어를 대표하는 말로서의 資格이 인정되고 規範性이 인정된 것이다. 方言은 方言대로 非格式의 言語狀況에서는 集團의 紐帶感이나 親熟性을 나타낸다. 그러나, 公人이 公式的 業務를 수행하는데 자기나름의 方言을 사용함으로써, 本意 아닌 誤解나 先入觀 또는 偏見을 불러일으켜 話者와 聽者 사이의 깊은 違和感을 가져올 수도 있다.

서울대학교 語學研究所(1981)의 조사 연구에 의하면, 各地域方言間의 態도와 標準語와의 關係 및 態度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자기 고장의 方言에 대하여 그 方言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慶尙方言에 대하여, 慶尙道の 男學生들은, ①씩씩하다 ②민음직스럽다 ③무뚝뚝하다 ④듣기 좋다 ⑤점잖다, 배움직하다, 부럽다의 順으로 반응을 보이고, 女學生들은 ①무뚝뚝하다 ②민음직스럽다 ③씩씩하다 ④듣기 좋다, 점잖다, 듣기 싫다 ⑤촌스럽다의 順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全羅方言에 대하여, 全羅道の 男學生들은, ①민음직스럽다 ②듣기 좋다 ③씩씩하다 ④무뚝뚝하다 ⑤배움직하다, 부럽다, 촌스럽다의 順으로 반응을 보이고, 女學生들은, ①촌스럽다 ②민음직스럽다 ③듣기 좋다, 상냥하다 ④씩씩하다의 順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濟州方言에 대하여, 濟州道の 男學生들은, ①무뚝뚝하다, 듣기 좋다 ②민음직스럽다 ③씩씩하다 ④촌스럽다의 順으로 반응을 보이고, 女學生들은 ① 무뚝뚝하다 ②듣기 좋다, 민음직스럽다 ③듣기 싫다의 順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忠淸方言에 대하여, 忠淸道の 男學生들은, ①점잖다 ②촌스럽다 ③듣기 좋다, 상냥하다 ④민음직스럽다의 順으로 반응을 보이고, 女學生들은 ①촌스럽다 ②점잖다

③무뚝뚝하다, 믿음직스럽다 ④배움직하다의 順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圈 男女學生은 모두 표준어에 대하여, ①듣기 좋다 ②배움직하다 ③상냥하다 ④점잖다 ⑤부럽다 ⑥믿음직스럽다의 順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상으로 보아, 대체로 자기 출신 지역 방언에 대하여 '믿음직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기 출신 지역 방언에 대하여 肯定的인 態度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여학생이 훨씬 더 否定的인 態度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地位(status)와 威信(prestige)에 敏感하다는 일반적인 外國社會의 조사 결과와 상통한다. 표준어의 위신에 자신의 지역 방언을 전주는 심리가 여자에게 더 작용하는 것이며, 반면에 남자가 여자보다 더 자기 지역 방언에 대해 '隱然中的 威信'(covert prestige)을 느낀다는 說과도 상통한다.

또한, 「각 지역 방언에 대한 타지역 학생들의 태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慶尙方言에 대하여, 全羅道學生들은 ①듣기 싫다, 무뚝뚝하다 ②씩씩하다의 順으로, 濟州道 學生들은 ①씩씩하다 ②무뚝뚝하다 ③듣기 싫다의 順으로, 忠淸道 學生들은 ①씩씩하다 ②듣기 싫다 ③무뚝뚝하다의 順으로, 서울圈 學生들은 ①무뚝뚝하다, 씩씩하다 ②듣기 싫다의 順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全羅方言에 대하여, 慶尙道 學生들은 ①듣기 싫다 ②간사하다 ③상냥하다의 順으로, 濟州道 學生들은 ①듣기 싫다 ②간사하다 ③상냥하다의 順으로, 忠淸道 學生들은 ①간사하다 ②듣기 싫다 ③상냥하다의 順으로, 서울圈 學生들은 ①듣기 싫다 ②간사하다 ③상냥하다의 順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濟州方言에 대하여, 慶尙道 學生들은 ①듣기 싫다 ②촌스럽다의 順으로, 全羅道 學生들은 ①촌스럽다 ②듣기 싫다의 順으로, 忠淸道 學生들은 ①듣기 싫다 ②촌스럽다의 順으로, 서울圈 學生들은 ①듣기 싫다 ②촌스럽다의 順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忠淸方言에 대하여, 慶尙道 學生들은 ①점잖다 ②듣기 싫다 ③촌스럽다의 順으로, 全羅道 學生들은 ①촌스럽다 ②듣기 싫다 ③점잖다의 順으로, 濟州道 學生들은 ①점잖다 ②촌스럽다의 順으로, 서울圈 學生들은 ①촌스럽다 ②점잖다 ③듣기 싫다의 順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준어에 대하여, 各地域 學生들이 모두 ①듣기 좋다 ②상냥하다의 順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상으로 보아, 표준어에 대해 각 지역 학생들이 肯定的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 비해, 특정 지역의 학생들이 다른 특정 방언에 대해 서로 눈에 띄게 否定的인 인상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어느 地域方言을 쓰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①약간 짐작할 수 있다(40%) ②어느 정도 알 수 있다(30%) ③알 수 없다(20%)의 順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체로 방언을 들어보면 어느 지역 출신인가 알게 되고 따라서 그 지역의 郷土色에 따른 性格을 약간 또는 어느 정도 짐작하거나 알 수 있다는 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方言 特有的 말투 자체가 주는 인상과 관련하여 性格을 짐작할 수 있다고 본 應答者도 많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상의 조사 결과로 보아, 어떤 特定 方言들에 대한 言衆의 偏見이 意外로 강함을 알 수 있고, 표준어에 대해 공통적인 肯定的인 인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표준어가 정해져 있는 이상, 그 표준어를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言衆이 익혀 씀으로써, 서로의 의사소통을 圓滑히 함은 물론, 國民의 一體感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公職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말하고 읽고 쓰는 데, 항상 표준어를 사용하여 國民으로 하여금 地域間的 違和感이나 疎親近感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公共機關에서 公示하는 文書나 揭示物도 표준어로 써야 할 것이다. 이는 國民教育的 見地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 2.3 感情節制語 및 親交語

말은 여러 가지 機能을 가진다.

첫째, 말은 그것을 듣는 이에게 새로운 情報 곧 知識이나 事實을 알려 주는 提報的 機能(informational function)을 가진다. 이러한 기능은 말이 가지는 여러 기능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말의 제보적 기능으로 말미암아, 역사적 사건·학문적 업적·과학적 사실·문화적 전통등을 앞세 대로부터 이어받을 수 있었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 줄 수도 있다. 말로 전달되고 전승되는 提報內容은 중요한 것도 있고, 중요하지 않는 것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고 불필요한 것도 있으며, 참된 것도 있고 거짓된 것도 있다. 그러나, 그 제보 내용이 어떠한 간에 말은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려 주는 구실을 한다.

둘째, 말은 말하는 이의 감정이나 생각을 나타내는 情示的 機能(expressive function)을 가진다. 이러한 기능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기쁨·노여움·슬픔·즐거움·미움·놀람·두려움 등과 같은 감정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말의 정서적 기능을 나타내는 가장 뚜렷한 보기로는 感歎이나 屢說을 들 수 있다.

가령, “아니, 이게 누구야.”, “젠장, 또 틀렸잖아.”, “저런 안 됐구나.”, “세기랄”, “야, 잘 생겼다”, “뭐라고 했어요”, “왜, 늦게 왔어요”, “저리가서 똥이 앉아” 등등.

이런 말의 정서적 기능은 個人的인 側面에서는 말하는 이의 감정이나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볼 때 효과적이고 적절할지는 모르나, 公的인 側面에서는 듣는 이에게 心理的 不安感을 주어 是非의 發端이 될 수도 있다.

公的인 立場에서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듣는 이의 감정을 상하지 않는 부드러운 말을 선택하여야 한다.

우리 祖上들의 슬기가 모아져서 전해오는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말을 푹푹히 딱 떨어지게 잘해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뜻만은 아닌 것 같다.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고 하였듯이, 그 표현을 얼마나 부드럽게 하느냐에 따라 듣는 이가 기분이 좋아져서 빚을 안 갚아도 좋다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가령, 우리는 ‘문을 열라’는 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때 듣는 이의 감정이나 태도는 다 다를 수 있다.

- |            |                          |
|------------|--------------------------|
| ① 문 열어     | ⑥ 문 좀 열어 주셔요             |
| ② 문 열어라    | ⑦ 문 좀 열어 주시겠어요           |
| ③ 문 열어요    | ⑧ 문 좀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④ 문 여세요    | ⑨ 문을 좀 열어 주십시오 부탁드리면 실례가 |
| ⑤ 문 좀 열어주게 | 되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          |

屢說, 過激한 말, 거친 말, 感情이 節制되지 않은 말등은 그 말하고 있는 내용이 合理的이지 못하거나 根據가 薄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公職者의 言語는 부드럽고 나직하게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말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의 행동이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하는 指令的 機能(directive function)을 가진다. 이러한 말의 기능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質問, 命令, 要請, 提案 등을 할 때 나타난다.

가령, 다음과 같은 예들은 말의 지령적 기능이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란 말야”, “문 닫고 들어와”, “같이 갑시다”, “책 좀 빌려 주시겠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째, 말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의 社會的 關係를 부드럽게 하거나 對話의 길을 트기 위해서 儀禮的, 形式的으로 사용되는 親交的 機能(phatic function)을 가진다. 말은 항상 어떤 뚜렷한 뜻이 있고 알맹이가 있는 내용만을 전달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말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서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감정을 표현하고 共感함으로써 親密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구실도 하게 된다.

우리는 對人關係에서 友好的 局面을 조성하기 위해 흔히 弄談, 재치 있는 말, 달콤하나 뜻없는 말, 인삿말, 날씨 이야기 등을 주고 받는다. 이런 말들은 對話의 空間을 배우고 앞으로 전개될 본격적인 대화에 기름칠을 하는 구실을 한다. 이처럼 말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보다 형식적이고 인사치레이기는 하나 단순히 말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말의 친교적 기능은 社會集團의 凝集力을 가져 오며, 말로 意思疏通에 參與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쓰다듬기」(stroking)하는 儀式의 하나라 볼 수 있다. 對話의 狀況에서 이런 「쓰다듬기」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對話 雙方間에 不安感이나 敵對感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公職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沈黙이나 통명스러움을 잠재우고 友誼的인 간단한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령, 다음과 같은 예들이 親交를 目的으로 하는 말이 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시죠”, “부모님께서도 안녕하십니까”, “날이 많이 풀렸습니까”, “몸이 좋아지셨네요”, “바쁘시죠”, “살펴 가십시오”, “바쁘신데 뵙자고 해서 죄송합니다”, “한번 더 오셔야 하겠습니까”, “오래 기다리셨지요”  
 “기쁘시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大故(喪事)말씀이야 무어라 여쭙겠습니까”, “좀 어떠십니까”, “차도가 좀 있으십니까”, “그럼 잘 조습하십시오”, “금년 풍작이 좋습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다섯째, 말은 言語的인 作品 자체를 위해서 사용되는 審美的 機能(aesthetic function)을 가진다. 이런 말의 기능은 언어의 詩的 使用에 나타난다.

이상에서 살펴 본, 언어의 다섯가지 기능은 실제 언어 표현에서 순전히 어느

하나의 기능만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대체로 둘 이상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가령, “날씨가 참 좋은데요”라 하였을 때 이는 적어도 ① 잠자리에 누워 있는 聽者에게 일어나라는 뜻으로 말한 경우 ② 날씨가 좋으니 나들이 가자는 의미로 말한 경우 ③ 출근길에 이웃사람에게 인사치레로 말한 경우 ④ 杜門不出하고 있는 話者가 혼잣말로 한 경우 ⑤ “날씨가 참 좋은데요, 그대는 어둠의 수렁 속에 마냥 빠져만 드나요”처럼 詩的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말이 가지는 機能을 잘 살펴 狀況에 알맞는 말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情示의 機能과 親交의 機能을 적절히 運用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2.4 事實根據語

言語 使用의 생명은 효과적인 意思 傳達이다. 이런 생명을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 요소는 言語的 世界(verbal world)와 事實 世界(nonverbal world)를 구별하는 것이다. 언어적 세계란 우리가 언어를 통해 도달하는 세계이고 사실 세계는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非言語的 世界, 外在的 世界를 말한다. 사실 세계는 사물, 사람등 우리 주위에 전개된 實在 世界이다. 이런 사실 세계는 言語 以前의 말없는 自然의 世界이다. 그런데, 이 사실 세계에 대하여 이름을 붙여 부르기 시작하면 언어적 세계가 우리 안에 형성된다. 그래서, 言語와 事實의 世界는 地圖와 現地에 비유할 수 있다. 地圖는 現地를 그대로 나타낼 수는 없다. 그러므로 言語가 표현하는 것은 대상 그자체 그대로가 아닌 것이다. 言語는 다만 사실 세계를 透視하는 필터어(filter)나 眼鏡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言語的 世界와 事實 世界를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 엄청난 思考判斷의 誤謬를 犯하기 쉽다.

사물이 가지는 價値를 判斷하는데 언어가 큰 영향을 끼치는 일이 많다. 어떤 물건이 좋고 나쁨을 판단할 경우에 그 물건 자체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나 宣傳 廣告 등에 좌우되는 수가 많다. 가령, 우리가 시장에 나가 물건을 고르는 경우에 어느 것이 가장 질이 좋고 가장 값진 것인가를 識別해야 한다. 빛깔, 쓰임새, 성능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게 된

다. 그런데, 우리는 물건 자체만을 보고서는 자기 혼자서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하는 수가 사실상 흔하다.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복잡하고 고급인 물건일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간단한 물건일 경우라도 스스로 그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여 고르지 못하는 수가 많은 것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助言, 그 물건을 이미 써 본 사람들의 見解, 그 물건의 성능을 잘 아는 사람들의 勸誘를 받아서 선택하는 수가 흔히 있다. 더구나 요즘에는 제조업자 자체의 勸誘 또는 弘報 등의 영향을 받아서 물건 선택이 이루어지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름 있는 기업체의 弘報의 효력은 많은 사람들의 가치 판단을 지배해 가고 있는 경향이다. 그것은 선전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판매량의 차이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사실에서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선전 광고의 언어는 주위 사람들의 권유와 마찬가지로 물건에 대한 우리의 가치 판단을 크게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표현한 말, 그것들과 관련된 회사나 사람들의 이름, 그것들에 대해서 남이 評한 말 등을 바탕으로 가치 판단을 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수가 많지만 우리는 사실의 힘보다는 말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는 갈대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우리의 머리 속에 평소의 想念이나 感興들이 우리의 행동을 암암리에 지배하고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드물다.

이런 언어적 가치 판단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사물을 직접 보고 만져도 그 사물의 성능이나 가치를 모를 수도 있고, 또 쓸모있고 가치있는 사물이 나와 있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지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그것을 바로 소개해 주고 그 올바른 가치를 알려주는 적절한 言語的 媒介行爲가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현대는 모든 것이 분업화되어 가고 또 많은 물품들이 새로 만들어져 나오고 있으니,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설명해 주는 情報의 提供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선전이나 남의 말에만 정신이 팔려서 사물 자체를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언어적 판단은 평가자의 주관성이 개입되기 쉬우므로, 가치관이나 관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相反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물의 판단에서 동떨어진 자신의 주관적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지나 않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상대방이 무의식중에 그와 같은 주관적 편견에 빠져있을 때에는 재빨리 看破해서 그것을 일깨워 깨닫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견해 차이가 생기는 이런 언어적 판단의 가치를 간파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무조건 공박하여 감정 대립을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우리 자신이 이런 경향이 있거나 없는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더구나, 견해 차이가 생길 때 상대방을 옹졸하다느니 무식하다느니 틀렸다느니 썩었다느니 하는 따위의 人身攻擊은 絕對禁物이다.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그가 성장해 온 배경, 인생관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들어가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적 대립을 격화시켜 사태를 돌이킬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

오늘의 言語狀況 속에서 우리는 事實이 아닌 造作된 말, 한없는 美辭麗句로 粉飾된 말, 正義를 假裝하고 道德의 냄새까지 풍기며 流行하는 말 등을 듣고, 그저 말 자체에만 反應하고 背後의 事實을 냉철하게 觀察·思考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이런 流言, 巧言, 虛言, 奸言, 險口, 中傷 등 事實과 다른 말에만 집착하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 뜻하지 않는 疎外, 不信, 斷層의 불행을 불러들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즉각적인 速斷을 할 것이 아니라, 아직 「事實」을 알아 보지 않았으니「잠시 기다리십시오」하는 言語訓練을 不斷히 쌓아가야 할 것이다.

## 2.5 多值的 思考判斷語

우리는 어떤 대상을 두 개의 對立된 面으로 나누어 둘 중 한 면만 택하고 다른 한 면은 버리는 思考 곧 二值的 思考(two-valued orientation)를 하기 쉽다. 이를테면, 善 아니면 惡, 是 아니면 非, 正 아니면 邪, 美 아니면 醜, 與 아니면 野, 全部가 아니면 全無(all or nothing), 共產主義者가 아니면 自由主義者 등 어떤 中間的 存在를 인정하지 않는 思考方式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善과 惡 사이에는 ‘至善, 善, 不善不惡, 惡, 極惡’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좋음과 나쁨 사이에는 ‘아주 좋음, 약간 좋음, 아주 나쁨, 상당히 나쁨, 약간 나쁨’ 등 程度의 差異가 있을 수 있으며, 共產主義者가 아니면 반드시 自由主義者라 斷定할 수 없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자유주의자도 아닌 회색분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黑 아니면 白이고, 白 아니면 黑이다’와 같이 제3, 제4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二值的 思考方式은 事物의 眞面目을 제대로 把握하는 데 오히려 방

해가 될 뿐이다.

二值的 思考는 대상의 여러 角度를 看過하고 있어, 이런 사고방식에 젖은 사람은 感情的이고 極端的인 말이나 행동에 흐르는 일이 많다. 이로 말미암아, 日常言語生活에서 對話의 斷絶, 相互非謗, 舌戰 등 極限對立의 상황을 빚어내게 된다. 모든 대상은 현실적으로 두 가지 側面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의 대상을 두 가지 側面으로만 나누어 보려는 단순하고 稚拙스러운 論理를 가진 公職者, 學者, 政治家, 藝術人 등을 흔히 보게 된다.

가령, 우리의 언어상황에서 흔히 쓰이는 “넌 너고 난 나다”, “네가 사나 내가 사나 두고 보자”, “절대로 용납 할 수 없어”, “兩端間에 해 보자”, “너 아니고도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 “이판사판이야”, “그 사람 빼 놓고 누가 있어”, “그게 인간이야”, “그 친구 싸수가 노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등의 말은 다 二值的 思考의 결과이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무조건 올려 세우고 자기 살이라도 베어 줄 것처럼 한없이 추켜올린다. 반면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당장에라도 없애버릴 듯이 酷評한다. 이런 식의 極端的 思考와 表現은 급기야는 인간관계를 파국으로 이끌어가기가 쉽다. 그뿐 아니라,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어 사회적 和解 분위를 깨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상으로 보전대, 우리는 자신의 말은 絕對的이라는 식의 閉鎖性을 없애고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제 견해로는”,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등의 말투로 시작하여 말하려는 內容의 可變性과 修正性의 餘地를 남겨 두어야 한다. 즉 多值的 思考判斷에 근거를 둔 말을 하여야 한다.

多值的 思考(multi-valued orientation)는 대상을 여러 角度에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가령, 어떤 것을 ‘ 좋음 ’ 과 ‘ 나쁨 ’ 두 가지로만 나누는 二值的 思考 대신에 ‘ 아주 좋음 ’, ‘ 상당히 좋음 ’, ‘ 약간 좋음 ’, ‘ 아주 나쁨 ’, ‘ 상당히 나쁨 ’, ‘ 약간 나쁨 ’ 등의 程度의 差異로 나누어 생각하면 다치적 사고가 된다. 또 兩者를 절충해서 ‘ 어떤 점이 좋고 ’, ‘ 어떤 점이 나쁘다 ’ 와 같이 판단하는 것도 다치적 사고에 속한다. 이런 다치적 사고방식은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여러 가지 尺度를 가지고 재고 판단하는 것이다.

다치적 사고는 모든 문제를 多角度에서 검토하여 상황에 알맞는 最善의 길을 찾기도 하고 또 갖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여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충돌과 파국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安全瓣이 된다. 또한 다치적 사고는 우리에게 열린 마음 (open mind)을 가져다 준다.

### Ⅲ . 結 語

지금까지 公職者로서의 警察官이 奉仕像 定立에 최소한 갖추어야 할 言語使用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경찰관은 다른 어느 공직자보다 더 겸양한 말씨를 쓰고 더 공손한 태도를 취하더라도, 그 업무의 특징 때문에 親切하다는 말을 듣기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말」때문에 本然의 모습을 評價切下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말은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가장 손쉽고 돈 안 드는 奉仕」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道具가 될 수 있음을 누구나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 조준학·박남식·장석진·이정민(1981), “한국인의 언어의식”, 『語學研究』 17-2, 서울大學校 語學研究所.
- 이정민(1981), “한국어의 표준어 및 방언들 사이의 상호 접촉과 태도”, 『한글』 제 173·174 호 어우름, 한글학회.
- 서정수·노대규(1983), 『말과 생각』, 한양대학교 출판원.
- 李奎浩(1975), 『말의 힘』, 第一出版社.
- 朴景賢(1984), “公職者の 言語”, 『경찰관의 화법』, 내무부 치안본부.  
——(1983), 『國語表現論』, 도서출판 한샘.
- 黃芝淵(1983), “韓國警察의 奉仕像 定立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碩士學位 請求論文.

사전에 막을 수 있는 安全瓣이 된다. 또한 다치적 사고는 우리에게 열린 마음 (open mind)을 가져다 준다.

### Ⅲ . 結 語

지금까지 公職者로서의 警察官이 奉仕像 定立에 최소한 갖추어야 할 言語使用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경찰관은 다른 어느 공직자보다 더 겸양한 말씨를 쓰고 더 공손한 태도를 취하더라도, 그 업무의 특징 때문에 親切하다는 말을 듣기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말」때문에 本然의 모습을 評價切下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말은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가장 손쉽고 돈 안 드는 奉仕」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道具가 될 수 있음을 누구나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 조준학·박남식·장석진·이정민(1981), “한국인의 언어의식”, 『語學研究』 17-2, 서울大學校 語學研究所.
- 이정민(1981), “한국어의 표준어 및 방언들 사이의 상호 접촉과 태도”, 『한글』 제 173·174 호 어우름, 한글학회.
- 서정수·노대규(1983), 『말과 생각』, 한양대학교 출판원.
- 李奎浩(1975), 『말의 힘』, 第一出版社.
- 朴景賢(1984), “公職者の 言語”, 『경찰관의 화법』, 내무부 치안본부.  
——(1983), 『國語表現論』, 도서출판 한샘.
- 黃芝淵(1983), “韓國警察의 奉仕像 定立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碩士學位 請求論文.

사전에 막을 수 있는 安全瓣이 된다. 또한 다치적 사고는 우리에게 열린 마음 (open mind)을 가져다 준다.

### Ⅲ . 結 語

지금까지 公職者로서의 警察官이 奉仕像 定立에 최소한 갖추어야 할 言語使用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경찰관은 다른 어느 공직자보다 더 겸양한 말씨를 쓰고 더 공손한 태도를 취하더라도, 그 업무의 특징 때문에 親切하다는 말을 듣기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말」때문에 本然의 모습을 評價切下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말은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가장 손쉽고 돈 안 드는 奉仕」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道具가 될 수 있음을 누구나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 조준학·박남식·장석진·이정민(1981), “한국인의 언어의식”, 『語學研究』 17-2, 서울大學校 語學研究所.
- 이정민(1981), “한국어의 표준어 및 방언들 사이의 상호 접촉과 태도”, 『한글』 제 173·174 호 어우름, 한글학회.
- 서정수·노대규(1983), 『말과 생각』, 한양대학교 출판원.
- 李奎浩(1975), 『말의 힘』, 第一出版社.
- 朴景賢(1984), “公職者の 言語”, 『경찰관의 화법』, 내무부 치안본부.  
——(1983), 『國語表現論』, 도서출판 한샘.
- 黃芝淵(1983), “韓國警察의 奉仕像 定立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碩士學位 請求論文.